

「바리공주」와 「니산샤먼」 비교 연구*

—‘여자’이면서 ‘샤먼’으로 사는 운명적 패러독스를 중심으로—

이정훈

〈목 차〉

- I. 서론
- II. 「니산샤먼」 : 샤먼의 완성 이후 몰락
- III. 「바리공주」 : 여성적 체험과 초월을 통한 현실거부
- IV. 한·중 여성 신성담의 비극적 미학의 보편성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한중 여성신성담의 대표작인 「바리공주」와 「니산샤먼」의 비교연구다. 니산은 저승여행을 하여 죽은 영혼을 살려온 만주족의 샤먼이다. 바리공주는 딸로 태어나 비참한 삶을 살지만 순종과 자비심, 헌신을 통해 무조신으로 등극한 한국의 무당이다. 두 작품의 비교연구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본고는 기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 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3S1A5B8A01072201)”

존의 연구성과를 확장하여, 서사구조와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두 작품의 상동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샤먼의 본풀이나 무조신화라는 전제로 두 작품을 파악했던 것보다는 고전적 보편성에 역점을 두고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두 작품의 미학이 발생하는 지점을 ‘여자’이면서 ‘샤먼’이라는 역설적 관점이라고 본다. 여기서 ‘여자’라는 설정은 사회적 관계이자 사적 관계망을 상징하는 것이며, ‘샤먼’은 사회적 직능 혹은 자아실현으로서의 직업세계를 대변하는 것이다. 「니산샤먼」과 「바리공주」의 연관성은 ‘직관’적으로 포착되지만, 실제로 작품구조를 분석해보면 두 작품의 차이점이 역으로 부각되는 결과가 부각된다. 실제 「니산샤먼」은 성인샤먼의 저승여행담이 주된 내용이지만, 「바리공주」는 딸이기 때문에 버려진 여자아이의 일대기다. 니산이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여자인 반면에, 바리공주는 순종적이며 헌신적인 일생을 살았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서사구조와 주제의식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서 두 작품의 동일한 비극적 보편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니산샤먼」은 샤먼으로서의 최고의 직능을 이루지만 저승에서 만난 남편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물에 갇혀 죽고, 「바리공주」역시 아버지를 위한 결혼을 감행하며 아버지를 살리지만, 이승에서의 영화를 거부한다. 필자는 이점에서 두 작품이 여자로 태어나 이생(이승)의 규칙에 편입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다루고 있다고 본다. 즉 여자의 의무와 샤먼으로서의 삶은 역설적 모순관계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현재에도 유효한 여성들의 딜레마이다. 이 역설적 모순은 두 작품의 고전적이며 보편적인 미학을 형성한다.

[주제어] 니산, 바리공주, 저승여행, 비극, 역설, 패러독스, 신성

I. 서론

「니산샤먼」에 관한 연구는 만주족과 한국의 상관성을 해명하기 위한 자료로 시도되었다. 「바리공주」와 저승여행이나 망자탈혼 모티프, 샤먼의 본풀이 성격이 동일하다는 판단 아래 비교연구도 진행되었다. 「니산샤먼」과 「바리공주」의 비교

연구사와 개별 연구성과를 점검해보자.

「니산샤면」은 성백인¹⁾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고 최준²⁾과 김영일³⁾, 광진석⁴⁾이 다양한 연구로 그 의미해석을 확장하였다. 한반도와 만주문화와의 유사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명권⁵⁾이 중국의 샤머니즘 연구를 구체적으로 요약정리 하였고 2015년에는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주립춘 부소장이 전북대학교에 방문하여 만주족 샤머니즘의 특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중에서도 중국인 유우가 작성한 「바리공주」와 「니산샤면」에 관한 석사논문⁶⁾에서는 「니산샤면」의 여러 이본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작품을 전문 번역하여 실어 활발한 후속 논의를 위한 기초를 닦았다.

「바리공주」에 관한 연구성과는 상당히 쌓여있다. 그중에서 이 글의 논의와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홍태한⁷⁾과 서대석,⁸⁾ 정재서가 대표적 논자이다. 홍태한은 김진영과 함께 바리공주 이야기를 집대성하여 전집을 출판하였다. 홍태한의 연구가 지니고 있는 미덕은 섭렵가능한 이본을 비교대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홍태한의 「바리공주」 연구는 분석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자료의 대조를 통한 이본 정리 성격이 강하다. 본고는 홍태한의 이본정리를 바탕으로 바리공주의 다양한 변이를 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재서는 기존의 바리공주에 관한 선행연구를 점검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1) 성백인, 滿文니산 巫人傳, 제이앤씨, 2008.

2) 최준, 「니산 샤면의 저승 여행」, 동아시아고대학 제21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4.

3) 김영일, 니산샤면의 비교연구-바리데기의 원형재구를 위한, 한국문화이론과 비평8,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2000.

4) 광진석, 한국의 영혼여행담과 시베리아 샤머니즘, 구비문학연구6, 한국구비문학학회, 1998.

5) 이명권, 중국 동북지역의 샤면문화 연구, 종교연구 74, 한국종교학회, 2014.

6) 유우, 니산샤면과 바리공주 비교연구: 샤면의 반인반신적 존재론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2015년. 이 논문은 니산샤면에 관한 학위논문으로, 논자가 중국인이라는 한계가 드러나지만, 니산샤면에 관한 이본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니산샤면과 바리공주의 비교항으로 샤면의 반인반신적 성격에 주목한 점은 본고와 동일하다. 본고에서 인용하고 있는 번역본도 이 논문에 실린 것을 바탕으로 삼았다. 유우가 번역한 것은 조전이 러시아어로 번역된 〈니산샤면전〉과 장길발이 번역한 〈니산샤면전〉을 종합해서 정리된 〈니산샤면전〉이다. 앞의 석사논문에는 중국어로 번역한 바리공주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 중국과의 학술적 교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7)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 민속원, 1998.

8) 서대석, 한국 신화와 만주족 신화의 비교 연구, 고전문학연구7, 한국고전문학회, 1992.

바리공주의 기본형에는 무조신의 좌정 단락이 들어갈 수 없다. 결국 바리공주는 처음부터 무조신화였던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실 이점을 간파하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묵인한 것은 바리공주를 처음부터 '무조신화'로만 보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다. 바리공주를 무조신화로 보지 않으면 무속의 전통성, 정통성, 정체성, 문화적 위상 등에 치명적인 손상이 간다.⁹⁾

정재서의 지적처럼 「바리공주」를 무조신화 혹은 무가로 전제한 것은 「바리공주」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억압하는 기제가 될 수도 있다. 본고는 이러한 한계점을 「니산샤먼」과의 비교를 통해 역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니산샤먼」과 「바리공주」의 상동성이 어디서 발생하느냐를 작품 자체가 지니고 있는 서사적 원리를 통해서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¹⁰⁾

다음은 「니산샤먼」과 「바리공주」의 비교연구 정리다. 두 작품에 관한 비교연구는 서대석, 김현선,¹¹⁾ 김환희¹²⁾가 시도하였다. 서대석은 만주족 샤머니즘과의 비교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며 「니산샤먼」, 〈천아선녀〉 등의 작품을 언급하고 있다. 김현선은 만주족의 「니산샤먼」, 일본의 〈천충희〉, 수메르 신 〈이난나〉의 저승여행과 「바리공주」의 저승여행을 비교하고 있다. 대부분의 비교연구에서 「니산샤먼」과 「바리공주」의 연관성은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다. 다만 논점의 차이에 따라 상동성과 이질성의 비중이 편차가 있을 뿐이다. 김환희는 세계의 다양한 이야기와 「바리공주」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적인 이야기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규명하고자했다. 이 과정에서 언급된 기존의 국문학적 논의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텍스트 자체를 꼼꼼하게 읽지 않은 오독을 지적하고 있다.

-
- 9) 정재서, 바리공주 이본연구의 허와 실-이본 연구의 이론적 검토-, 한국무속학8, 한국무속학회, 2004.
- 10) 바리공주는 홍태한과 김진영이 펴낸 바리공주 전집1-3을 대상으로 한다. 바리공주의 이본에 관한 연구는 홍태한의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1998)'을 바탕으로 바리공주 전편을 참조하여 언급할 것이다.
- 11) 김현선, 저승을 여행하는 여신의 비교연구-바리공주, 天忠姬, INANNA-, 비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2006.
- 12) 김환희, 바리공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서-외국의 생명수탐색담 및 니산샤먼과의 비교연구, 동화와번역 10,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2005.

본고는 지금까지의 「니산샤면」과 「바리공주」 비교연구 업적을 토대로, 두 작품의 어떤 요소가 지속적인 비교연구를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바리공주」의 주제에 대한 고찰은 효 이데올로기 구현, 무불의 습합, 샤면의 세계관 등으로 나뉜다. 바리공주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서천서역으로의 모험을 감행하는 것에서 ‘딸’인 바리공주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은 가부장적 세계 안에서 딸의 희생을 정당화시키는 것과 통한다. 여기에 망자의 세계를 탐험하여 모든 죽은 이를 환생시키고 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바리공주의 샤면으로서의 권능에 집중하기도 한다. 무조가 되어 해원상생의 세계를 구현하고 죽음을 관장하는 여신이 되는 본풀이인 셈이다.

「니산샤면」의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니산이 망자를 위해 저승여행을 감행하고 환생을 도와주는 역할은 작품의 중추를 이루는 사건이다. 하지만 저승 체험이 두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요소인 점을 제외하고는 샤면을 업으로 삼고 있는 니산과 아버지를 위해 샤면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바리의 일생은 다르게 느껴진다. 바로 이러한 점이 두 작품의 공통점을 ‘직관’적으로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연구를 진행할수록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 것이다.

「니산샤면」과 「바리공주」는 한중의 여성신성담의 대표작이라 해도 손색이 없는 작품이다. 두 작품으로, 여전히 시대를 초월하여 미학적 가치를 지닌 고전으로 남아있다. 두 작품은 주인공이 샤면이라는 점과, 구혼(求魂) 혹은 저승체험 등의 대표적 모티프를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작품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해결되지 않는 보편적 특질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여자’이면서 ‘샤면’으로 살아야 하는 패러독스(역설)적 운명에 집중하여 두 작품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특성과 미학적 성취를 드러내고자한다. 즉,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 모티프로 작품에 접근한 기존 연구와 달리, 작품 속의 서사논리를 통해 도출된 주제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별 작품의 서사구조와 주제를 고찰해보자.

II. 「니산사면」 : 사면의 완성 이후 몰락

「니산사면」의 서사적 국면은 간단하다. 니산의 저승여행, 저승경험담, 저승여행 후로 구분된다. 「니산사면」의 핵심은 저승에 가서 죽은 영혼을 되살리는 위대한 사면의 이야기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했던 것과 달리, 본고에서는 저승담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인 서사국면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니산사면」의 서사적 세 국면을 살펴보자.

가. 니산이 저승여행을 하여 죽은 혼을 되돌린다.

니산의 저승여행의 목적은 구혼이다. 죽은 자는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거만하지 않고 재능과 인품, 환경을 겸비한 완벽한 아이다. 그의 부모 역시 재물과 명망을 모두 갖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처럼 세속적 인간의 모든 것을 갖춘 그들에게 찾아온 불행이 ‘횡사’이다. 이본에 따라서는 이미 큰 아들을 불의에 먼저 보낸 아픔이 있는 부모가 극도의 경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을 잃게 되기도 한다. 그들은 모두 선망의 대상이자 현세의 모든 것을 소유한 행복의 조건을 가진 자들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다. 예견된 비극을 조심하지만 누구나 그러하듯이 순간의 방심으로 시련을 맞이해야 하는 운명을 보여준다.

그들을 절대적인 고통에서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니산’이다. 오직 니산만이 죽음의 땅을 여행하여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기 때문이다. 니산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전 재산을 잃더라도 아들을 살리려는 부자의 의지와 비천한 노인에게 베푼 선행이 없었다면, 부자 역시 니산을 소개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현실에서 니산은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하고 방탕한 젊은 과부이기 때문이다.

이후 니산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승길로 향한다. 「니산사면」의 주된 내용은 니산의 저승활약상을 담은 것이다. 이 때 니산이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부자의 재력으로 제공될 수 있었던 ‘폐백’이다. 생사의 경계를 넘을 수 있는 니산의 능력은 분명 놀라운 것이지만, 저승의 세계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모두 물물교환이다.¹³⁾ 저승의 관문을 통과할수록 니산의 행동은 극적이고 자

유분방해진다. 이것은 부자가 마련한 물건이 있기에 가능한 활력이기도 하다.

「니산샤면」에서 구혼(求魂)의 의뢰인이 소유한 절대적 부유함은 그들의 선한 인품과 더해져 만인의 동정을 얻는 계기가 된다. 그들이 소유한 절대적 부유함은 자식의 죽음 앞에서도 살아있는 부모의 일상이 더 막강한 이승의 논리를 차단할 수 있는 ‘순수’한 애도의 상징이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에게 찾아온 ‘아들의 죽음’과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완벽한 부자아들의 ‘횡사’는 현실적 한계가 없는 ‘슬픔’이자 운명을 되돌리고자 하는 간절함을 구성하는 조건이다. 그러기에 부자의 재력은 죽음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불가능한 욕망이며 니산샤면에 계는 저승여행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자유롭게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결국, 니산은 관문을 통과하고 현생으로 귀환한다.

나. 저승에서 남편의 원혼을 만나 지옥에 던져버린다.

니산샤면은 죽은 자를 살려 이승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의 원혼을 만나게 된다. 남편은 집요하게 자신을 살려내라고 협박한다.¹⁴⁾ 니산은 그의 혼을 되살릴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¹⁵⁾하지만 남편의 요청은 집요하게 계속되며 인신공격도 서슴치 않고 있다. 니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영원히 환생할 수 없는

13) 니산샤면은 수탉, 개를 이끌고, 된장과 종이를 메고, 모든 신들은 그녀의 주위를 둘러싸고 죽은 나라로 염라대왕을 찾으러 갔다…… 샤면이 북을 강물에 던지고는 그 위에 서서 회오리바람처럼 순식간에 강을 건너갔다. 강 주인에게 된장 세 덩어리와 종이 세 묶음을 사례금으로 드리고는 즉시 출발했다. 재빨리 걸어서 첫 번째 관문에 도착했다…… 니산샤면은 명함과 된장 세 덩어리와 종이 세 묶음을 드리고 통과했다. 두 번째 관문에 도착해서도 앞에서와 같이 이름과 사례금등을 남기고 통과했다.(유우, 앞의 논문, 148쪽)

14) 그 후에 니산샤면이 ‘색이고래’의 손을 잡고 돌아갔을 때 길가에서 남편을 보았다. 가보니까 남편은 수숫대가 기름술을 끓이고 있다. 화가 나있는 것처럼 보였다. 아내를 보는 순간이 이빨을 소리나게 악물며 노하게 말했다. “음탕스러운 샤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게다가 내가 당신과 어렸을 때부터 결혼하고, 당신과 친밀한 남편이다! 나를 살려서 데리고 가면 안 좋냐? 내가 여기에서 특별히 기름술을 끓이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할 거야 말거야, 어서 말해봐! 살려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못 가게 해줄 것이고, 이 기름술은 당신의 끝이야!”

15) 당신의 몸 해란비서론비./정맥과 혈관 이미 끊었습니다 해란비서론비./벌써 죽었습니다 해란비서론비./시체가 이미 마르고 있습니다 해란비서론비./뺨과 살이 벌써 썩었습니다 해란비서론비./어찌 살릴 수 있습니까?

지옥공간(풍도성)으로 보내버리고 만다. 남편의 불합리한 요구가 더할수록 니산의 대응은 감정적 후련함을 선사할 정도로 단호하다.¹⁶⁾ 그리고 남편의 요구 혹은 애원은 이전에 전개되었던 부잣집 아들의 혼을 구하는 과정, 즉 ‘폐백의 사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부자들이 얻은 기적은 사면의 남편에게는 일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면의 남편은 구혼여행에 필요한 노잣돈과 폐백을 댈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면의 남편은 죽은 후 오랫동안 방치되어 돌아갈 육신이 사라진 상태이다. 곧 그의 죽음은 삶의 한 과정으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의 죽음을 삶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순수한 애도’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생사의 협상에서 요구되는 이승에서의 선행도 없다. 부자의 아들이 염라대왕까지도 욕심을 부릴 인품을 지니고 있다면, 사면의 남편은 이승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기적이며 부당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다. 저승세계 자체의 질서로만 본다면, 니산사면이 남편을 풍도성으로 보내야만 했던 이유는 지극히 합리적이며 타당한 판결이었다. 부자들의 혼을 구하기 위해 필요했던 조건, 저승의 구조와 환생의 규칙 등 저승세계에 관한 정보를 종합해 봐도 ‘남편’의 급작스러운 요구와 폭력적인 언행은 ‘지옥행’이 예정된 것이라는 것이다. 니산은 자신의 길을,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남편의 혼령을 처리해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다. 저승여행을 마친 후, 우물에 갇혀 죽는다.

저승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니산의 죽음은 여자이면서 동시에 사면으로서의 신성한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패러독스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말이다. 니산은 죽은 영혼을 되찾는 기적을 이루었지만 우물에 갇혀죽게 된다. 저승에서 남편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린 것이 화근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니산의 죽음을 초래한 사람이 그녀 자신이라는 것이다. 니산이 저승여행을 끝내고 죽은 영혼을

16) 덕양구덕양구…… 남편이 없이 덕양구덕양구./자유롭게 살자 덕양구덕양구!/남자가 없이 덕양구 덕양구./당당하게 살자 덕양구덕양구!/친정 집에서 덕양구덕양구./놀고 살자 덕양구덕양구!/젊을 때 덕양구덕양구./즐겁게 살자 덕양구덕양구!/아이가 없이 덕양구덕양구./앞으로 살자 덕양구 덕양구!/같은 성씨의 가족이 없지만 덕양구덕양구./친밀하게 살자 덕양구덕양구!/젊을 때 덕양구 덕양구./손님처럼 살자 덕양구덕양구!

살리면서 저승여행담을 공수¹⁷⁾하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일도 발설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니산샤면의 역설적 삶을 보여주는 국면이다. 니산의 공수는 트랜스 상태¹⁸⁾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니산의 활약은 삶과 죽음의 영역을 가로질러 이승의 의지를 죽음의 영토에서 관철시킨 것이기에 막강하다. 그리고 이것은 의뢰인과 니산만의 특수한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것이다. 그리고 니산의 죽음으로 인해 전무후무한 성공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이승의 도덕적 가치를 생각하여 남편과의 일을 인위적으로 삭제할 수는 없었다. 남편과의 일만 없었다면 현실로 귀환한 니산은 세속적 영화와 존경을 받는 신성한 존재로 남았을 것이다.¹⁹⁾ 그러나 니산의 공수는 자신의 신성을 온전히 발현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현실적 배려에 의한 편집이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편을 풍도성에 버린 사실이 트랜스 상태에서 발설되어 시어머니의 귀에 들어간 것은 사람의 혼을 되살릴 수 있는 니산만의 권능의 그림자다.²⁰⁾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니산을 불러 사실 여부를 묻게 된다. 니산의 자백을 받은 시어머니는 그녀의 반인륜적인 행동을 관가에 고발한다. 저승에서의 일을 세속적인 관리에 의해 처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녀가 고발을 당한 이유는 ‘독한’ 심성 때문이다.²¹⁾ 니산의 최후에 대해서는 여러 이본이 존재하지만²²⁾ 임금에 의해 우물 속에 감금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
- 17) 무당이 신이 내려 신의 소리를 내는 일이나 죽은 사람의 낮이 하는 말이라며 전하는 말을 가리킨다.
 18) 정상적인 의식이 아닌 상태. 최면상태나 히스테리 상태에서 나타나는데, 외계(外界)와 접촉을 끊고 깊은 명상상태에 들어가 특수한 희열에 잠기는 것을 말한다.
 19) 주연에서 모든 사람들이 취했다. 그 후에 식탁을 지우고 차와 말을 준비해서 은돈과 옷 등 물품들이 각 반절으로 나누서 차에 실었다. 札林에게 옷을 일조, 악대말 한 마리, 말을 타고 필요한 모든 장비, 이백냥 은을 주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샤면과 札林에 집까지 보냈다. 그 이후로 니산샤면은 아주 부자가 되었고, 그 札林과 가까운 일도 그쳤다. 혼자서 진지하게 살기로 했다. 모든 사악한 일을 끊었다. 샤면은 모든 징벌을 보고 나서 마음을 가라앉고 이전에 모든 사악한 생각과 청산했다. 마치 더러운 물은 깨끗한 물로 변해는 것과 같다.(유우, 앞의 논문, 166쪽)
 20) 이본에 따라 니산 스스로가 남편을 처벌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승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서 소문이 번진 것도 있다
 21) “그렇다면 네가 남편을 다시 죽인 거잖아! 그냥 피하면 안 되었나? 너의 마음이 정말 독하다!” 말을 끝나고 京城에 가서 御史에게 고소했다.(위의 논문)
 22) 유우가 정리한 것을 참조하면 29이본 중에 17편이 니산을 감금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 이외에 니산의 최후에 대해 언급이 없는 경우(11개), 니산의 죽음과 부자의 복수(1)이다.(위의 논문, 45쪽-48쪽)

아문이 니산사면을 불러와 구두 자백을 취하여 그녀의 시어머니와 말하는 것과 같다. 이 구두 자백이 종이에 적어놓고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서 임금에게 전했다. 임금이 크게 노하여 刑部가 법에 따라 죄를 정하라고 했다. 刑部가 말하기를: “전하는 일들은 니산사면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위 아녀자 중에 용감한 자입니다. 이미 숨김없이 자백했으니 목숨을 남길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태종임금이 降旨했다.

“그의 남편의 모양처럼 사면, 신모, 허리 방울, 남자 타악기등 기구들 모두 상자에 넣고 철삭으로 묶어서 마을의 우물 속에 버려라! 내 御命이 없으면 꺼내지 말아라!”

御史는 御命대로 일을 처리했다.²³⁾

저승길에서 했던 일을 추적하여 세속의 군왕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시어머니나 그것을 적용시켜 판결을 내리는 법적 조치는 부자연스럽다. 사생(死生)의 단절만큼 절대적인 것이 또 있을까?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나 영생에 대한 간구는 삶이 ‘일회’라는 것에서 발생한다. 태어난 사람이라면 죽어야 하는 이치가 있기에 부활이나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말이 니산사면의 여러 이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니산이 남편의 혼령에 극단적 처벌을 내린 사실과 니산이 사람을 살린 증거 사이에는 역설이 존재한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은 부자의 아들 ‘색이고대’의 생존으로 구체적으로 증명된다. 죽어서 장사를 지낸 사람이 다시 깨어나 활동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다. 그 말은 니산의 권능이 실재한다는 의미다. 남편의 처분문제가 자의적으로든 타의로든 발설되었지만 그것은 증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색이고대’를 환생시키는 것과 남편을 풍도성에 감금시키는 일은 동시에 벌어진 일이다. 두 사건 모두 검증할 수 없는 저승세계에서 벌어졌지만, 부자들이 ‘색이고대’의 환생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세속의 권력이 사면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환생한 ‘색이고대’라는 사실에서 ‘역설’이 발생한다. 니산사면이 남편을 풍도성에 감금시킨 사실이 과거/저승의 일이라서 현실적 법리를 적용시킬 수 없다고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색이고

23) 위의 논문, 155-156쪽.

대'를 직접 살려낸 니산샤면의 저승활동을 부정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여자이면서 샤면인 역설적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니산샤면의 위대한 과업을 '진실'로 믿는다면, 부녀의 미덕을 저버린 현실윤리의 영역도 실제로 인정해야만 하게 된다.

결국, 니산샤면의 우물 속 감금은 두 가지의 모순적인 가치를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녀를 직접 죽이기에는 그녀의 권능이 실재하고 있다.²⁴⁾ 그렇다고 현세의 윤리에서 벗어난 존재로 인정하기에는 그녀는 세속적 권력에 속한 존재이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자 미봉책이 '남편'에게 했던 행동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이다. '색이고대'를 자신의 권능으로 되돌려놓은 것처럼, 자신의 권능으로 풍도성에 가둬놓은 남편처럼 자신도 우물 속에 갇히고 만 것이다.

Ⅲ. 「바리공주」 : 여성적 체험과 초월을 통한 현실거부

바리공주의 경우는 니산보다 더 복잡하고 병적이다. 니산의 경우는 여자(아내)이면서 샤면인 정체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니산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비장하다. 그런데 사회적 자구책이 없이 개인적 관계망(삼종지도三從之道)에 의해 삶을 영위해야 하는 여성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바리공주 혹은 바리데기의 경우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빠진 여자의 삶이다. '딸'이기 때문에 버림받고 뒤늦게 찾은 아버지를 위해 죽음의 땅으로 향하는 삶은 여성으로서 삶의 기반이 없는 상황이다. 바리공주의 삶을 여자이면서 무당인 조건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서사국면으로 정리된다.

가. 바리데기가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위해 저승여행을 감행한다.

바리공주의 버려짐은 가장 낮은 자의 처지를 의미한다. 바리공주는 성장하여 자

24) 이본에 따라 그녀의 죽음 이후 재앙이 닥쳐 왕이 용서를 비는 경우도 있다.

신을 버린 부모와 재회한다. 바리공주가 버려진 이유는 아버지의 ‘분노’에서 연유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바리공주가 ‘딸(여자)’이기 때문이다.²⁵⁾ 엄밀한 의미에서 바리공주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력하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성별을 선택하여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야기의 전개상 바리공주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고집에서 연유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분노와 바리공주의 버려짐은 이본에 따라 세 번에 걸쳐 반복되기도 한다. 바리공주의 버려짐은 딸로 태어나 겪는 학대와 구박을 대변하는 극단적 상황이다. 바리공주의 아버지의 발명이 신성한 마리를 버린 것의 대가이거나 우연의 결과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바리공주의 심리적 난제는 자신을 버린 부모가 다시 찾아와, 저승여행을 부탁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청탁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혈연’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뜻대로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핑계에 딸을 버릴 수 있는 이유도, 죽어가는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저승의 길을 밟도록 간청할 수 있었던 근거도 ‘딸’인 것이다.

결국 품 안에서 키운 여섯 명의 딸들은 아버지의 간청을 거절하지만 바리공주는 뒤늦게 상봉한 부모를 위해 길을 떠난다.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자신을 버린 부모를 위해 길을 떠난다는 사실에서 바리공주의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다. 자식을 포기할 수 있는 부모의 ‘이기적’ 자질과 자신을 버린 부모를 위해 길을 떠나는 바리공주의 ‘희생적’ 자질이 극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가 없이 더부살이를 하며 살아가는 바리공주에게는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때 바리공주의 원망은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한다.²⁶⁾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하늘에서 내

25) 시녀가 그때 달리 와서리 전하는 말씀이 대왕님요 대왕님요 요번에도 또 칠공주가 분명하옵니다. 전하더니 그때에 오구대왕님으는 천둥겜은 화가 나고 진둥겜은 부애가 나서 큰 소리 진둥하여 보기 싫다 보기싫다 그 아이는 내하고 원수가 맺어서러 딸이 되었으니 소양없다 어서 바빠 갖다 버리라고 호령을 처니(바리공주 김해 강본이본 35쪽)

26) 대표적으로 보성 김해연본이 있다. 본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를 찾을 이 없건만은 그 누기가 나를 찾소/아니다 나가 느그 어미로다/젓 한 번도 못 먹이고
 썩대발에 죽으라고 던졌터니 아니 죽고 살아났나/느기 부친이 느그 일곱을 낳고 심화로 병이 들어
 금면 사경 되 는디 시왕산에 약물이 있다는데 네가 조금 갈라느냐/베르덕이 기가 막혀 죽으라고
 썩대발에 던지 베르덕이/여섯 형님네는 부영당에 곱게곱게 길렀는데/여섯 형님네 어따 두고 썩대
 발에 죽으라고 던졌든 더지덕이 베랫던 베르덕이/나를 보고 가라시오 기도 못가겠습네다/아니 베

려준 효녀라는 평가와 함께 어차피 인간으로 태어난 삶에서 죽기 전에 은혜를 갚겠다고 길을 떠나는 바리공주의 행보는 운명에 대한 순응과 체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무방비 상태에서 생존권을 결정할 수 없었던 유아상태의 ‘기아’와 다르다. 자신을 버린 부모를 확인하고 그들을 위해 스스로 결정한 삶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바리공주의 저승길 여행 선택은 상처의 근원으로 귀환하여 다시 상처를 극복해야 하는 실존적인 역설이 발생하는 순간이다.

나. 저승에서 아버지를 위해 약수 지키는 이와 결혼한다.

이본에 따라 남장(男裝) 여부가 나뉘기도 하지만 바리공주가 구약(求藥) 과정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결하며 지옥에 갇힌 영혼을 구제하는 것과 약수 지키는 이를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다. 바리공주에게 저승여행은 ‘아버지’를 위한 것이다. 버려진 바리공주에게 삶의 방향성이 애매했다면, 부모와의 조우는 그녀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가 된 셈이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는 개인적 불행을 제외하고는 가족관계의 역학에서는 보편적인 단계이다. 부모에게서 받은 태생적 조건과 독립된 자아로 삶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감당해야 할 개별적이고 지난한 성숙의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바리공주는 아버지의 발병으로 인해 부모와 재회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발견한 셈이다. 아버지의 부락은 불확실했던 바리공주의 삶을 인식하게 하고, 본격적인 삶의 서사를 진행시키는 계기가 된다. 바리공주의 삶의 서사는 저승 여행을 감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바리공주는 저승길에서 원조자를 만나서 과업을 완수하기도 하고 지옥에 갇힌 죄인들을 구제해

리덕아 부인이 안으로 들어온 후에/베르덕이 생각하니 出天之孝女라 첫차에 하늘 섬기시고 두차에는 땅을 섬기시고 세차에는 만물초목 삼기시고 이수인가은 이사 이수인간이 태어났는디/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오장 은공이나 갚고 죽을라네하고/베르덕이 집으로 돌아와서 양친부모 앞에 두 무릎 정히 꿇고 베르덕이가 잘 못 뵈었습니다/어느 영이라고 아니 가고 어느 말썽이라고 거역할 수 있사오라까/천리 길도 내가 가고 만리길도 내가 가서 부친을 살린다면 약물을 길러오나 니다하고/중략/난 데 없는 쓸쓸이 바람 광풍이 불어 떡갈잎 모양되야 베르덕이를 간 데 없이 금방 섰던 베르덕이/人忽不見 간 곳 없네(바리공주 보성 김행연본, 바리공주 전집1, 531쪽)

주기도 한다. 이런 점들은 무조(巫祖)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바리공주에게 중요한 사람은 약수 지키는 이다²⁷⁾. 그는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약수를 지키는 이와 만남은 자신이 왜 저승여행을 떠났는지를 환기시켜 주는 사건이다. 그리고 바리공주는 약수 지키는 이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는다. 기존의 논의에서 바리공주의 혼인을 해석하는 입장은 다양하다.²⁸⁾ 바리공주의 혼인에 대한 이견은 크게 자발적/내재적 동기에 의한 것이기에 여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이루게 되는 계기였다는 긍정적 해석과 아버지를 위한 혼인이 지니는 미개함 혹은 봉건적 압력이 비극적으로 반영된 이야기라는 입장으로 나뉜다. 특히 ‘아버지’라는 혈연관계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아버지를 위해’ 또 하나의 사회적 계약관계인 결혼을 감행하는 상황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가 논란거리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쟁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논의의 전제였던 여자와 사면으로서의 역설적 상황은 모순적 관계의 딜레마일 뿐, 극단적 대립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바리공주의 상황에서 ‘결혼’모티프는 지옥경험이나 죄인구제보다는 그녀의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중요하다. 바리공주가 결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아버지’를 위해서이다.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생활과 출산도 ‘아버지’라는 명분이 있기에 과감하게 감내해야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바리공주가 약수 지키는 이와 아이를 낳는 기간이나 가사노동에 바치는 기간은 실제로 아버지를 구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렸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의지적으로 길을 떠나던 바리공주에게 남성과의 결혼생활과 출산은 또 하나의 순응과 희생의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이 국면은 오로지 여자인 ‘뎀’으로

27) 대개가 무장승, 무장선관으로 나타나는 것은 서울 경기지역본들이다…… 신선이나 선관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라도 지역본들이다…… 이와 같이 동해안 지역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약수를 지키는 사람이 ‘동수자’라고 나타나 있다. 동수자는 하늘에서 죄를 지어 약수터 지킴이로 내려온 사람으로 아들 삼 형제를 낳아야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외에도 약수 지키는 이를 만나는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다(홍태한, 앞의 논문, 51-12쪽) 본고에서는 약수 지키는 이라는 용어로 바리공주가 과업을 완수하기 이전에 결연하는 남자를 지칭하려고 한다.

28) 장영란, 한국 여성-영웅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딸’의 원형적 이미지분석과 ‘효’이데올로기 비판, 한국여성철학회, 한국여성철학회, 2008. 이윤희, 한국 민담에서 살펴본 여성의 부성콤플렉스, 심성연구25, 한국분석심리학회, 2010. 조하연, 서사의 분기점을 통해 본 「바리공주」의 성장, 문학치료연구2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뚝고 나가야하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의 시간은 여자로서 독자적으로 감당해야 할 체험으로, ‘효’라는 가치로 설명할 수 없는 실존적 상황인 것이다.

다. 아버지를 구하고 무조신이 된다.

약수 지키는 이와 결혼을 감행해야 했던 이유는 ‘아버지’였지만, 결혼생활과 출산으로 인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기도 한다. 아버지의 위독함을 알게 되는 내용²⁹⁾은 일부지역에만 등장하지만, 약수를 구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기까지의 시간이 지연된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녀의 삶에서 ‘효’라는 것은 분명히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동기다. 그리고 ‘효’를 위해 감행해야 했던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딸로서의 정체성이 여자로 옮겨지는 사건이다. 이것으로 인해 아버지는 죽음에 이르렀지만 바리공주는 이미 귀갓길에 사람을 살리는 꽃을 얻었기에 아버지의 죽음을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다. 아버지의 죽음이 바리공주의 결혼 때문에 지연된 것이지만 역으로 결혼생활을 통해 얻은 숨살이 꽃으로 아버지의 극적인 소생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그러나 부모의 동의없는 혼인과 출산은 아버지의 회생과 함께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이미 버림받았던 바리공주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는 추상적인 미지의 대상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구병(救病)을 위해서 필요했던 혼인과 출산은 개별적이며 독자적인 결정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환생 앞에서 대면해야 하는 자신의 사실혼 관계는 부녀 사이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바리공주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은 사실을 고하는 장면을 살펴보자.

목동들이 하는 말이 남문 열고 바라진다. 계명산천 밝아온다. 小興 大興 떠나온다. 大興을 바라보니 임금왕자 분명쿠나. 소어를 바라보니 臣下 臣者 분명쿠나. 버리다 버리데기 던지다 던지데기 칠공주 어디 가고 父母所養 모르느냐. 그제야 칠공주가 허는 말이 무장승을 바위틈에 감추시고 아기는 수풀에 감추시고 머리풀어 發喪하고 소여도 물

29) 예를 들어 꿈을 통해 듣거나, 저승사자를 만나서 알게 되는 내용으로 변이되어 전승되고 있다.

러놓고 대여도 물러놓고 안매 일곱 박매 일곱 클르시고 빠살이 빼에 대고 살살이 살에 대고 숨살이 숨에 대고 약려수를 흘려 넣으시니 대왕마마 돌아누우시며 허시는 말씀이 너희들 복색이 원말이나. 만조백관이 하는 말이 승하하신 지 석달 열흘 만에 인산거동 나오시다 버리다 버리데기 던지다 던지데기 칠공주가 부모소양 왔다. 나오실 적엔 인산 거동 나오시러니 드실 적엔 거승시로 드셨구나. 어서 칠공주 입시들라. 칠공주 하시는 말씀이

“저는 부모 앞에 죄를 짓고 왔나이다.”

“네 죄가 무슨 죄냐 모든 것이 내죄로다.”

칠공주 하는 말이 “무장승 만나 백년기약 말고 왔나이다. 그나 그뿐 아니라 일곱아들 산전 받아 왔나이다.”

그러면서 무장승이 어서 바빠 입시들라 하옵시니 광하문에 사모뿔이 걸려 못들어 오나이다. 地陷을 파라고 하교를 내리시니

“너희는 바로비니 천생연분에 이승배필이라” (바리공주 양주 조영자본)

이본마다 차이가 있지만, 바리공주가 다시 살려낸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서역에서 했던 일들을 고백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딸로 태어나 여자의 삶으로 전환하여 살아야 하는 전통적인 여성들의 운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아버지를 살려야 하는 바리공주는 아버지가 살아났을 때 자신의 혼인과 출산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딸’로 사는 것과 ‘여자’로 사는 삶 자체가 ‘부권’의 영역에서 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리공주 이야기에서 바리공주의 결혼은 무척 중요한 국면이 된다.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위해 저승여행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바리공주가 아버지를 위해 자발적 선택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적 상황을 통해, 결과적으로 주체적 자아로 성숙하기 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홍태한은 ‘무조신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리공주의 결말이 ‘무조신으로의 좌정’이라는 점은 자연스러운 것(58쪽)이라고 언급하지만, 딸과 여자로서의 삶을 중심으로 본다면, 바리공주의 죽음 결말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진다.³⁰⁾ ‘딸’

30) 그제 그렇구 주구 나니 그제 모두 앉아 텅텅 부스면서러 모두 어느 저기 쓸어지는지 자는지 쓸어지는데 다 쓸어져. 쓸어지고 보니 일곱째 바리더기는 그 언니 쓰러지는 거 보구 보니 아주 기백혀. 나는 잠깐 잠시에 어머니 자겠습시다. 으 닐 자겨라. 그럼 니 정심 지어주께. 어머니 내려가 정심 다 지어 기주구 들어와서 야. 일어나서 아무리 고단하더러두 정심 먹어라. 어디 가니 강가나가바

로 태어나 버려진 것도, 홀연히 나타난 아버지를 위해 새로운 길을 떠나야 하는 것도, 그녀에게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낯선 남자와 결혼하여 출산을 감당하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운명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바리공주의 삶은 그녀의 선택과 자유의지가 삭제된 듯 보여서 어떠한 결말로도 자아의 실현 같은 현대적 개념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 그것은 오히려 아버지라는 대상에게 자신의 삶을 반납한 것처럼 보인다.

이외에도 혼인을 하여 자식을 낳거나, 효부열녀가 되는 결말의 이본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조신으로 좌정한다. 아버지의 명령에 평생 순종한 바리공주가 정작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고 나서 망자의 길을 천도하고 죽음의 의례를 관장하는 신으로 좌정한다는 것은 제주 생명의 신, 자청비와 비교된다. 특히 자청비의 출생을 비교해보면 명확한 대비가 된다. 자청비 역시 아들을 낳을 운명이었으나 부모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는 바람에 딸로 태어난다. 바리공주와의 차이라면 부귀공명을 모두 소유한 부모가 치성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점이다. 바리공주의 버려짐이 아버지의 과도한 분노에 의한 것이라면, 자청비의 출생은 지극한 소원에 의한 것이다. 두 부모가 아들을 낳을 기회를 판단 착오로 잃었지만, 바리공주는 버려졌고 자청비는 성별과 상관없이 거침없는 외동딸의 자신감 속에 성장한다.³¹⁾ 자청비의 거침없는 행보는 문도령과 만난 뒤에 부모에게 글공부를 시켜달라고 조르는 데서 극대화된다. 자청비는 ‘글’을 매개로 극적인 사건을 겪으며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곡식 종자를 받아와 곡식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등극한다.

자청비의 역동적인 삶에 비하면, 바리공주의 삶은 우울하고 비극적이다. 그녀가 아무리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과 얻어야만 했던 출발점이 절대적인 부권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소생 능력이 ‘재생’의 능력으로 연결되지 않고 죽음을 위로하는 오구곳의 현상으로 수렴된다는 사실은 바리공주 이야기가 진혼과 위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다 죽었거든. “내 소자야 내 엘ैया 어찌다가 죽었느냐” 할 수 없어서 죽은 거는 내 가야 되겠구 해서 내다가 봉성으로 높이높이 해서 내다 문구서리 날이 날마다 그 산이 가서 애고 대고 애고 대고 자꾸 운다(바리공주 함흥 이고본본 바리공주 전집)

31) 김진국의 외동딸 자청비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났다. 용모는 여자인데 행동거지는 남자와 같았다. 가만히 있기를 싫어하고 일을 벌이기를 좋아해서 이 일 저 일 일마다 참견이었다(신동훈, 『살아 있는 우리 신화』, 한계레신문사, 2004, 225쪽)

을 보여준다. 그녀가 딸과 여성으로서의 과업이 완성되는 지점에서 저승세계를 선택한 것은 현세적 가치관을 모두 포기한 상태를 의미한다. 바리공주에게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것이었으며 누군가를 위한 가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성가신 삶이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서 언급한 바리공주의 죽음이나 무조신으로서의 좌정, 승천 등은 모두 세속의 가치에 대한 부정과 포기, 버림의 다양한 표현이다.

IV. 한·중 여성 신성담의 비극적 미학의 보편성

이미 살펴본 두 작품의 서사단락을 ‘여성’과 ‘샤먼’의 삶으로 분석해보면, 니산과 바리의 차이점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니산은 샤먼으로서 최고의 정점을 누리며 혼령을 구하는 권능을 행사했지만 죽음에 이르렀고, 바리는 인간적인 비참한 운명을 개척하고 죽은 영혼을 살린 대가로 죽음의 신으로 좌정한 것이다. 니산은 저승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된다. 특히 자손마마와의 조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명확히 배우게 된다. 자손마마는 만주족에서 생명을 관장하는 대여신이다.

자손마마가 말했다. “내가 어찌 잊었지! 네가 전생했을 때 안 간다고 하고, 내가 너를 달래서 신모도 신어주고 허리 방울도 메주고 남자의 타악기도 주고 해서 굿을 하는 것처럼 환생했다. 네가 이름 나는 것은 당연하는 거야, 이번에 네가 여기에 오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다. 네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이 받아야 형벌들을 보여주려고, 이승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다음에 또 오면 안되. 샤먼, 儒者, 노복, 어르신으로 나누었다. 혹은 명예를 받고, 혹은 악행을 해서 난을 일으켰다. 부자, 가난한 자, 도둑, 승려, 거지, 애주자, 노름꾼, 色徒,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모두 여기에서 정해지고 나서 보내는 거야. 모든 天命이다!” 말을 마치고 하인을 불러서 샤먼을 데리고 여기에 징벌제도들을 보러 갔다.³²⁾

니산샤먼은 저승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절대 자유를 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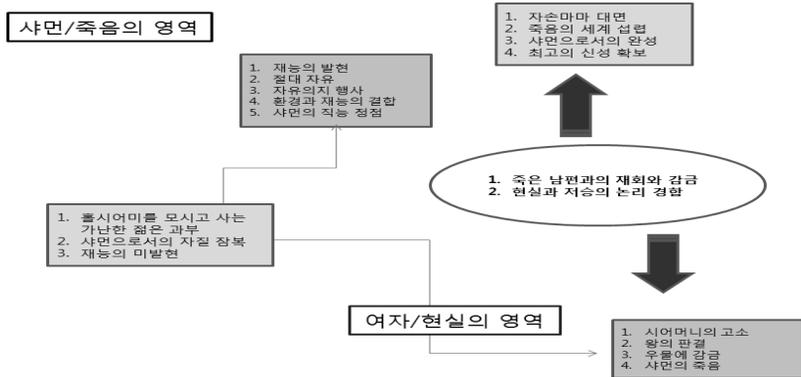
32) 유우, 앞의 논문, 159쪽

긴다. 현실에서 궁핍한 젊은 과부일 뿐이지만, 부자의 요청으로 시작된 저승여행에서는 능동적이며 재기발랄한 샤면이 된다. 그녀의 자유의지와 권능이 극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은 바로 ‘죽은 남편’과의 조우이다. 남편의 육신은 이미 썩었고 되돌릴 이유도 없었다. 니산은 애원하며 자신을 보내주기를 간청했지만 남편은 폭언과 협박으로 그녀의 갈 길을 방해한다. 결국 니산은 남편과의 인연을 정리하며 그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지옥에 감금한다. 남편과의 조우는 저승과 현실논리의 경합이 벌어지는 사건인데, 니산은 저승의 권능을 행사하며 이승의 인연을 끊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니산이 ‘색이고대’를 살려 이승으로 귀환했을 때, 저승의 모든 일을 전하는 과정에는 남편을 처리한 일도 포함되어 있다. 니산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능과 남편을 지옥에 감금시킨 사실은 모두 참명제이거나 혹은 모두 거짓명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니산의 저승활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죽었다 깨어난 ‘색이고대’로 충분하다. 색이대고가 살아 존재하는 이상, 저승에서 남편에게 했던 처우도 사실인 셈이다. 그것을 저승의 일이라 판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색이대고를 살린 니산샤면의 공적을 의심하는 일이 되는 셈이다. 결국 의식적 세계(윤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니산은 자신이 보고 듣고 행했던 모든 일을 적실하게 말하게 된다. 이때의 상황은 니산이 시대적 여건을 고려하여 저승에서 일어난 일을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다.

니산은 저승세계의 기적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아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남편과의 관계를 극단적으로 정리한 일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니산의 비정함을 탓하며 관가에 고발한 것이다. 저승세계에서 일어난 부부의 일을 세속의 군주가 처리하게 된 셈이다. ‘샤면’으로서의 완벽한 정체성과 능력도 ‘아내’라는 현세적 논리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니산은 우물 속에 자신의 신령스러운 물품들과 함께 갇히고 만다. 그리고 「니산샤면」에서 샤면의 직능과 여자의 의무는 역설적인 관계로 얽혀있다. 다시 말해, 샤면으로서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자의 의무를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직업으로 만족하는 세속적 샤면들에게는 일상과 신성한 과업이 병행되겠지만, 니산이 가진 죽은 이를 되살릴 수 있는 불가사의한 능력과 여자의 의무를 강요하는 현실적 평화로움은 함께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샤먼/죽음과 여자/현실의 영역은 역설관계로 엮여서, 샤먼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과 한 남자의 아내로서의 의무는 극명하게 나뉘어 분리되고 있다. 이것이 「니산샤먼」이 도달한 비극적 미학의 핵심인 것이다.



이제, 바리공주의 경우를 살펴보자. 바리공주는 ‘버려진’ 딸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다. 니산샤먼 이야기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성인 여자의 이야기인 반면, 바리공주는 비참한 출생부터 성장, 결혼, 죽음까지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이야기다. 바리공주의 삶은 아버지의 발병(發病)으로 인해 ‘효’라는 이념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자신이 딸이기 때문에 버려진 사실과 동시에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위해 저승여행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후 아버지를 위해 길을 떠나 지옥에 갇히거나 죄수를 구하는 일에서도 그 출발점에는 ‘효’라는 명분이 깔려있다. 여전히 현실/개인적 관계 위에서 서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니산샤먼이 한 여자의 직업적 활약이 주를 이루고 남편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개입된다면, 바리공주는 한 여자의 생애에 맞춰 무조(巫祖)로 좌정하기까지의 과정이다.

그리고 바리공주에게 아버지와 남편의 존재는 샤먼이 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일차적으로 아버지는 바리를 사회적 관계 속으로 호출하는 역할을 한다. 부모와의 상봉은 바리공주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바

리공주는 스스로 버려진 처지이지만, 부모를 위한 삶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약수를 지키는 이를 만나는 상황은 이보다 더 복잡하다. 그가 요구하는 결혼과 출산, 노동의 시간은 위독한 아버지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는 지나치게 힘들고 긴 시간이다. 그렇다고 그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절할 수도 없다. 뒤늦게 찾은 부모의 요구도 낮선 것이지만, 약수 지키는 이의 요구도 난감한 것이다. 결국 약수를 구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결혼생활과 출산, 노동을 감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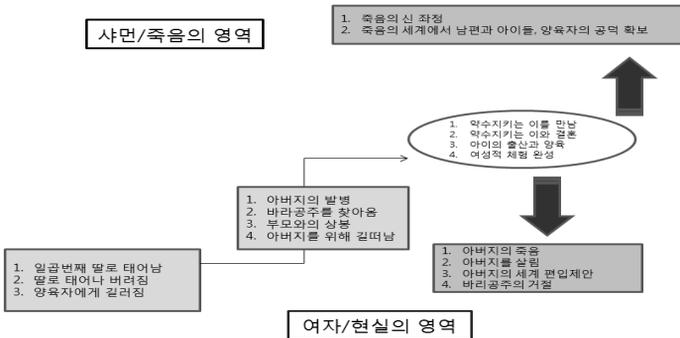
하지만 바리공주가 아버지의 세계에 편입된 상태에서 부모의 승낙을 받지 않은 결혼은 결과적으로 불경죄가 되고 만다. 고아 상태에서 결혼은 개인적인 결정으로 가능하지만, 부모상봉 이후에서는 결혼을 허락받아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바리공주의 결혼과 출산은 아버지를 위한 거대 목적에서 선택한 것이지만, 아버지와 딸의 윤리적 관계 속에서는 거역이다. 부모의 세계에서 배제된 바리공주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지만,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진다. 그러나 부모와 재회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수용하며 떠난 저승길에서는 부모라는 현실적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약수를 구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는 이미 죽은 상태에 놓인다. 그러나 약수와 함께 꽃구경을 하며 사람 살리는 꽃을 구했기 때문에 부모를 살려낸다. 그리고 부모를 살려낸 다음에 직면해야 할 문제는 ‘결혼과 출산사실 알리기’이다. 죽음의 세계에서 살아 돌아온 아버지는 바리공주의 독자적인 결정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있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일들은 사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약수 지키는 자와의 결혼과 출산은 아버지의 세계에 편입되어 스스로 달성해낸 자신만의 체험이기도 하다. 바리공주는 자신이 버려진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의 요청에 순종하여 떠났지만, 약수 지키는 자와의 결혼을 통해 자신만의 일가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리고 살려낸 아버지에게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독립적인 위치를 확보한 셈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전폭적인 용인과 환영에도 불구하고 바리공주는 저승세계를 선택한다. 이본에 따라서 부모의 계급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이본에서 아버지는 국토를 소유한 국왕이다. 바리공주에 의해 소생한 아버지는 그녀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이 소유한 것을 선물하려고 한다. 단지 자신의 기대에서

벗어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을 버릴 수 있었던 과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살린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환대와 관대함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는 자신을 버린 부모를 위해 삶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했던 바리공주의 특별한 헌신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바리공주는 부모의 이러한 용인과 환영을 거부한다. 무조신화며 본풀이, 오구 곳의 현장에서 채록된 정황을 전제로 살펴본다면, 바리공주의 좌절은 행복한 결말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바리공주를 ‘무가’가 아닌 문학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바리공주의 신격화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제안을 거절하고 죽음의 영역으로 옮겨가 신격의 지위를 확보했다는 설정은 바리의 삶과 죽음의 비극을 형상화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다. 실제 바리공주의 이본에는 바리의 돌연한 죽음으로 맺는 경우도 있다. 여자와 현실의 영역에서 바리의 일생은 ‘딸’이라는 조건에서 비극을 맞이하고 ‘여자’로서 선택한 삶 역시 아버지의 세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무런 죄도 없이 버려진 것과 죽음을 극복할 만큼의 노력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는 바리의 삶은 사면의 세계가 지향하는 비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딸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사면의 세계를 완성해주는 요소지만, 위대한 무조신으로 등극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 역시 딸과 여성으로서의 개인적 행복인 것이다. 여성으로서의 가장 비참한 상태에 처하고 이후의 삶도 그 상처에서 놓여날 수 없는 운명적 존재였던 그녀가 신성한 사면의 공황과 위로, 해원상생의 권능을 완성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인 미학을 성취하게 한다. 바리공주의 서사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V. 결론

지금까지 니산과 바리공주의 서사구조와 주제의식을 살펴보았다. 샤면이지만 여성 혹은 아내이기도 한 ‘니산’과, 딸의 의무를 다하며 샤면이 되어버린 ‘바리’는 모두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 저승체험, 샤면이 된 경로, 과업완수 방법 등의 소재 차원으로만 비교한다면 두 작품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드러난다. 니산은 샤면으로서 주로 활약하고, 바리는 가족관계에 집중하다 샤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작품은 모두 ‘여성’에 대한 윤리적 의무라는 사회적 관계와 ‘샤면’으로 대표되는 직능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설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니산이 샤면으로서의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지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나 바리공주가 효도라는 윤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모두 바친 이후에 죽음의 신으로 좌절하는 결말이 모두 이러한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두 가지 요소가 구현되는 방식에서 선후의 차이는 명확하다. 니산은 샤면으로서의 자존감이 여자로서의 비천한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추동력을 지녔기에 보다 자율적이고 과감한 선택을 하게 된다. 바리는 여자로서 가장 비참한 출발점에서 단계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기에 더 소극적이고 양가적 가치를 포함한다.

이런 점에서 니산과 바리이야기는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여성 신성담이기도 하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생물학적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가치는 현대사회에서도 딜레마이기 때문이다. 딸, 여자, 아내라는 이름으로 성장하는 여성들과 죽음의 세계 즉, 새로운 사회 속에서 자유를 얻는 샤면의 직능은 모두 역설적인 의미로 남아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홍태한, 『서사무가 바리공주 연구1』, 민속원, 1998.
홍태한·김진영, 『바리공주전집』 2-3, 민속원, 1997/2001.
성백인, 『滿文니산 巫人傳』, 제이앤씨, 2008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문화사, 2004.

2. 논문

- 김영일, 「니산샤면의 비교연구-바리데기의 원형재구를 위한」, 한국문화이론과 비평8, 한국문화이론과 비평학회, 2000.
김현선, 「저승을 여행하는 여신의 비교연구」, 비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2006.
김환희, 「바리공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찾아서」, 동화와 번역 10, 건국대학교 동화와 번역연구소, 2005.
서대석, 「한국 신화와 만주족 신화의 비교 연구」, 고전문학연구7, 한국고전문학회, 1992.
이명권, 「중국 동북지역의 샤면문화 연구」, 종교연구 74, 한국종교학회, 2014.
이유경, 「한국 민담에서 살펴본 여성의 부정콤플렉스」, 심성연구25, 한국분석심리학회, 2010.
유우, 「니산샤면과 바리공주 비교연구:샤면의 반인반신적 존재론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2015.
장영란, 「한국 여성-영웅서사의 희생의 원리와 자기 완성의 철학」, 한국여성철학9, 한국여성철학회, 2008.
정재서, 「바리공주 이본연구의 허와 실」, 한국무속학8, 한국무속학회, 2004.
조하연, 「서사의 분기점을 통해 본 바리공주의 성장」, 문학치료연구29, 한국문학치료학회, 2013.
최준, 「니산 샤면의 저승 여행」, 동아시아고대학21, 동아시아고대학회, 2010.

〈Abstract〉

Princess Bari and Nishan Shaman Comparative Study

– Focusing on the paradoxical perspective of their being a ‘woman’ and ‘shaman,’ –

Lee, Jung-hoon

This study compares Princess Bari with Nishan Shaman, two representative female mythical stories of Korea and China. Nishan was a shaman of Manchuria, who traveled the other world and saved ghosts. Princess Bari is a Korean shaman who was born as a baby girl, lived a miserable life, but acceded to the Shaman Ancestor Goddess through obedience, mercy and devotion. Studies of comparison of the two works have continued since the 1990s. This study extends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and attempts to reveal the homogeneity between the two works, focusing on narrative structure and thematic consciousness. This approach is an attempt of an in-depth analysis with a focus on classical universality rather than understanding under the presumption that the two works are an oral mythic epic of a shaman or a shaman ancestor myth.

Especially, this study notes that the point where aesthetics of the two works is produced is the paradoxical perspective of their being a ‘woman’ and ‘shaman.’ Here, the setting of being a ‘woman’ symbolizes a social relationship and private network while a ‘shaman’ represents a social function or the vocational world as self-realiz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Nishan Shaman and Princess Bari is ‘intuitively’ captured, but concrete studies of the actual works result in bringing into relie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orks, reversely. Actually, Nishan is mainly involved with a story of an adult shaman’s travel in the other world, but Princess Bari is a story of a girl who was abandoned because of her being a girl. While Nishan is an active and autonomous woman, Princess Bari lived an obedient and devoted life.

In spite of these differences, this study notes that the two works obtain the same tragic universality when they are analyzed, focusing on their narrative structure and thematic consciousness. Nishan Shaman reaches her peak as a shaman, but is locked in a well and dies because she did not save her husband that she saw in the other world, and Princess Bari, too, saves her father by getting married for him, but refuses prosperity in this world. In this sense, the two works deal with the cost women should pay in order to assimilate into the rules of this life, born as a woman. In other words, woman's duties and life as a shaman connect to each other as a paradoxical contradictory relationship. Also, this circumstance is a woman's dilemma, which still subsists in the present. In addition, this constitutes a classical and universal aesthetics of the two works.

|Key words| Nishan Sanman, Princess Bari, Tragedy, Paradox, Irony, Woman

* 이 논문은 2016년 2월 12일에 접수되어 2016년 3월 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3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